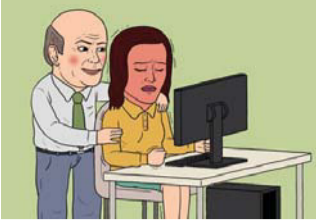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2566.46 (-1.28)	코스닥	913.57 (-7.39)
금리 (미국 3년)	2.27 (-0.03)	환율 (원/달러)	1067.90 (-5.70) (1.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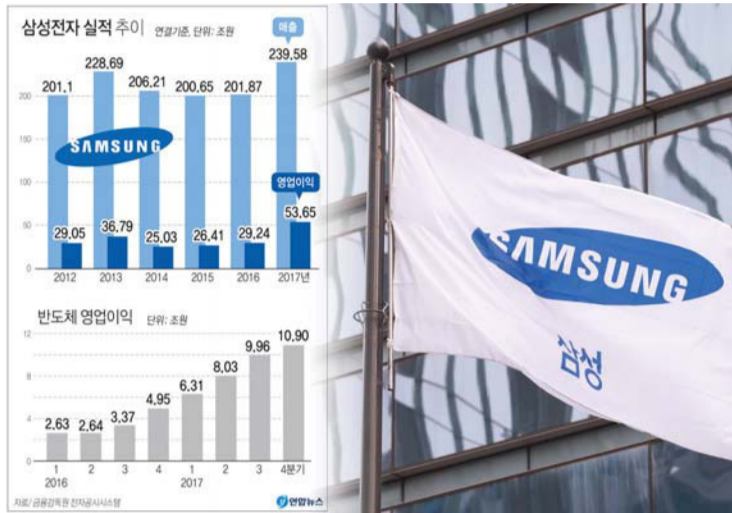
[뉴스]
“나도 당했어요”
한국판 미투...
응답하라 대한민국
02

황제株서 국민株로... 인텔 넘어 세계 1위

(50:1 액면분할)

(반도체 부문)

연간 영업이익 50조 돌파
반도체 사업 매출만 35조
을 실적 60조 장밋빛 전망
개인투자자 투자기회 확대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호황’에 힘입어 연간 및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관련기사 12면>

국내 단일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50조원도 넘었다.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만 35조2000억원을 벌어들이며,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증권 업계는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60조원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메모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라

망 속에 삼성전자가 올해 다시 한번 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50대 1’의 액면분할 결정 등 파격적인 주주가

치 제고 방안도 내놓았다. 주당 260만원에 달하는 ‘황제주’에서 불렀지만 이번 액면분할 결정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 239조5800억원, 영업이익 53조65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8.7% 늘었고, 영업이익은 83.5%나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2.4%였다. 삼성전자의 역대 연간 영업이익 최대 기록은 지난 2013년으로 당시 매출은 228조6900억원, 영업이익은 36조7900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50조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한 일등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면

서 반도체 사업부문에서만 매출 74조2600억원, 영업연간 35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영업이익에서 반도체 영업이익만 65.6%를 차지한다.

이 같은 실적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부동의 반도체 1위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시장 1위 자리에 올랐다. 인텔은 지난해 연간 매출이 628억 달러(약 67조원)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60조원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센터 분야가 반도체 수요를 이끌 것이라 예상된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호황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적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 D램 수요는 데이터센터, 신규 플랫폼 등 인프라 확대 영향으로 증가하고, 낸드 공급은 중저가 모바일, 가격 탄력성이 높은 일부 운영체 확대 등으로 연간 공급이 견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변동폭이 큰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중국발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 삼성전자는 언제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기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셰이프가드 발동 등 미국 발 보호주의 정책이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으며, 환율 역시 요동치고 있다.

<6면에 계속>

/정은미 기자 2tcindun@metroseoul.co.kr

신동빈 “이익 짜내기 보단 사회적 가치 함께 고려를” 호반, 대우건설 품었다

올해 ‘뉴 롯데’ 원년

중장기적 성장 위해선
적절한 투자 동반돼야”

“2018년은 뉴 비전 실행의 원년이며 ‘질적 성장’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해달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1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롯데 중앙연구소에서 개최된 ‘2018 상반기 롯데 사장단회의’인 ‘벨류 크리에이션 미팅(VCM)’에서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새로운 비전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최근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4강 신화를 이뤄낸 정현 선수처럼 도전 정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을 가질 것도 당부했다.

롯데는 지난해 선포한 뉴 비전에 맞추어, 롯데의 지속 성장을 위한 가치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에 ‘사장단회의’로 불리던 행사의 명칭을 ‘벨류 크리에이션 미팅’으로 변경했다.

사장단회의가 주로 현안 및 사업전략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던 자리였다면 VCM은 롯데의 가치 창출 및 중장기적 성장 방향에 대해 상호 소통하며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신 회장은 “질적 성장은 단순한 이익 짜내기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 수익성을 확보해 지속성장을 이루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투자도 동반되어야 함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경쟁 기업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롯데

의 기업가치를 더 키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명확한 비전을 통해 내부 임직원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는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기 계신 대표이사들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핵심역량 강화’, ‘글로벌 사업 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를 꼽았다.

우선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회사의 자원을 집중해달라”며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핵심사업을 축소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면에 계속>

/박인우 기자 parkiu7854@

산은, 우선협상자로 선정

중견건설사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품었다. <관련기사 3면>

KDB산업은행은 31일 이사회에서 호반건설을 대우건설 인수 합병(M&A)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의 ▲ 새로운 주인 찾아주기 ▲ 정책금융의 선순환 ▲ 대우건설 발전에 기여 등 매각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호반건설은 전체 매각 대상인 대우건설 자본 50.75%(2억1100만 주) 중 40%만(1억6600만 주) 우선 사들일 계획이다. 나머지 10.75%

(4500만 주)에 대해서는 2년 뒤 추가인수하는 옵션을 부여했다.

호반건설의 인수는 주당 7700원으로 약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자본 40% 인수대금은 1조2800억원 수준이다. 풋옵션 행사 대상 자본 10.75%는 대우건설 주가가 주당 7700원을 밑돌 경우 행사에 약정한 금융이자를 더해 호반건설에 되팔 수 있다.

산은 전염성 자본시장부문장은 자본을 남겨둔 이유에 대해 “산은이 2대 주주로서 함께해 대우건설이 경영 안정화를 이룰 때까지 파이낸싱 등에서 불안요소를 해소하고자 풋옵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 9 개회식 19:00~22:10
2. 25 폐회식 19:00~22:0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강원도 | 문화체육관광부

교통정보 (평창 동계올림픽 교통안내)

www.pyeongchang2018.com/ko/spectator-guide

환승주차장(무료)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관중은 환승주차장에 주차 후 셔틀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운영기간: 개회식 1일 전 ~ 폐회식 1일 후 / 운영시간: 06:00 ~ 23:00 *심야 경기는 경기 종료 2시간 후까지 연장(대우료)

관중 셔틀버스 운행
운영기간: 개회식 1일 전 ~ 폐회식 1일 후
운영시간: 매일 첫 경기 3시간 전 ~ 마지막 경기 종료 2시간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내 반입금지 및 사용 제한 품목

- 음식(과일 포함), 음료(물 포함), 텀블러, 유리용기, 액세서리, 소음 유발 음원도구(막대풍선, 풍라리, 징, 확성기, 부부젤라, 호루라기 등), 대형 국기 (가로 3m x 세로 2m 초과), 애완동물,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 인종차별·특징종교·정치적·상업적 문구 및 그림 등

평창올림픽 앱

- GO 평창: 2018 평창 공식 앱
- 실시간 대회 정보 제공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일본어)
- GO 교통: 교통 정보 제공
- 투어 가이드: 강원도 숙박, 관광, 음식, 교통 정보 제공
- 자녀북: 29개 언어 번역기

개회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2월 그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tickets.pyeongchang2018.com

‘고래’ 대우건설 삼킨 ‘통큰 새우’ 호반그룹 어떤회사?

자기자본 대우 2배, 현금자산 2.3兆... 숨은 강자

공정위서 공사 대기업집단 지정 후발 브랜드 불구 미분양율 낮아 어음없이 공사비 100% 현금결제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왼쪽)과 서울 새문안로 대우건설.



/연합뉴스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대우건설의 새 주인에 호반건설이 결정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3위(2017년 기준)인 호반건설이 3위인 대우건설 주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인수합병(M&A) 시장의 ‘2018년 결정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호반건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호반건설은 1989년 전라남도 광주를 기반으로 김상열 창업주가 자본금 1억원, 직원 5명으로 출발했다. 현재 호반건설은 수도권 및 전국 신도시마다 아파트 브랜드 ‘호반베르디움’과 주거복합 브랜드인 ‘호반 씨밋플레이스’를 선보이고 있다.

호반건설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4년 연속 AAA등급, 서울신용평가정보 신용평가 11년 연속 A등급 등 건설업계 최고의 신용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시공능력평가는 13위다. 호반건설 계열(호반건설주택, 호반건설산업, 호

반베르디움 등)은 외형과 내실에서 대우건설을 앞서거나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호반건설계열사의 총 추정매출액 6조원, 추정 영업이익은 1조3000억원 규모다.

대우건설의 매출액 11조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7000억원 규모로 수익성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작년 말 총자산 규모는 호반건설 계열이 약 8조원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17년 말 누적 자기자본도 5조3000억

원으로 대우건설 약 2조5000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호반 관계자는 “우량한 재무구조를 보유한 만큼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의견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현금성 자산 비율이 높아 이번 입찰에서도 금융기관의 차입 보증서 없이 계열법인의 자금 증빙만으로 1조5000억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성 자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8년 말 2조3000억원이 예상된다.

호반건설은 후발 주택 브랜드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율이 낮고, 입주율은 높은 편이다.

호반건설의 지속 성장 요인은 크게 4가

지다. 첫째, 외형 성장에만 얽매이지 않고 내실 있게 성장한다는 점이다. 기존 분양 사업지,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신규 분양을 진행하는데, 자연스럽게 사업 리스크 관리도 하게 된다.

둘째, 보유 현금의 효율적인 활용이다. 호반건설은 ‘단 한 장의 어음도 사용하지 않고 공사비를 100% 전액 현금결제’라는 독특한 경영기법을 선보이고 있다.

협력업체에게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절감된 비용은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다. 셋째,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이다. 호반건설은 직원들의 멀티-태스킹(Multi-tasking) 수행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대처해 나가고 있다.

넷째, 역발상의 기업문화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은 외면당하고 있던 주상복합, 오피스텔 시장에도 진출하면서도 분양 성공을 이끌었다.

호반건설은 M&A시장 등에서도 알려졌지만 기업이 성장할 때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리스크 관리 경영에 있어서도 ‘누적 분양 원칙’과 ‘무차입 경영’은 정평이 나

- ### 호반건설 주요 연혁
- 1989년 호반건설 설립
 - 1999 호반 사회공헌국 설립
 - 2001 스카이밸리CC 인수
 - 2002 천안 1,500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국에 아파트 공급
 - 2005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브랜드 론칭
 - 서울 본사 이전, 수도권 사업
 - 2008 납세자의 날 철탑산업훈장 수훈
 - 2010 와이퀼레레CC 인수
 - 2011 KBC 광주방송 인수
 - 2013 아브뉴프랑 론칭
 - 2015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훈
 - 2015 주택건설의 날 대통령 표창
 - 2016. 6 울트라건설 인수
 - 2016.11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설립
 - 2016 건설협력증진대상 (국토부장관상) 수상
 - 2017 제주 퍼시픽랜드 인수

있다. 이미 분양한 단지의 누적 분양률이 일정 수준(90%)을 넘지 않으면 아예 신규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시공능력평가액 10.7조 건설업계 지각변동 예고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건설업계가 들쭉날쭉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13위의 호반건설이 3위인 대우건설을 뚫었기 때문이다. 호반건설은 단순히 건설업계 3위로 뛰어 오른다.

호반은 아파트 사업 위주의 건설사다.

반면 대우건설은 건축·토목·플랜트·해외사업 등 전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건설사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호반 측은 전반적인 규모에서 대우에 미치지 못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 ‘새우’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호반 계열사 전체의 자기자본을 합

하면 대우건설의 두 배에 달하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대우보다 높다는 것이다.

시공능력평가액은 2017년 기준 대우건설이 8조3012억원, 호반건설이 2조4521억원 규모다. 두 회사를 합치면 10조7533억원이다. 1위인 삼성물산(16조5885억원), 2위인 현대건설(13조7106억원)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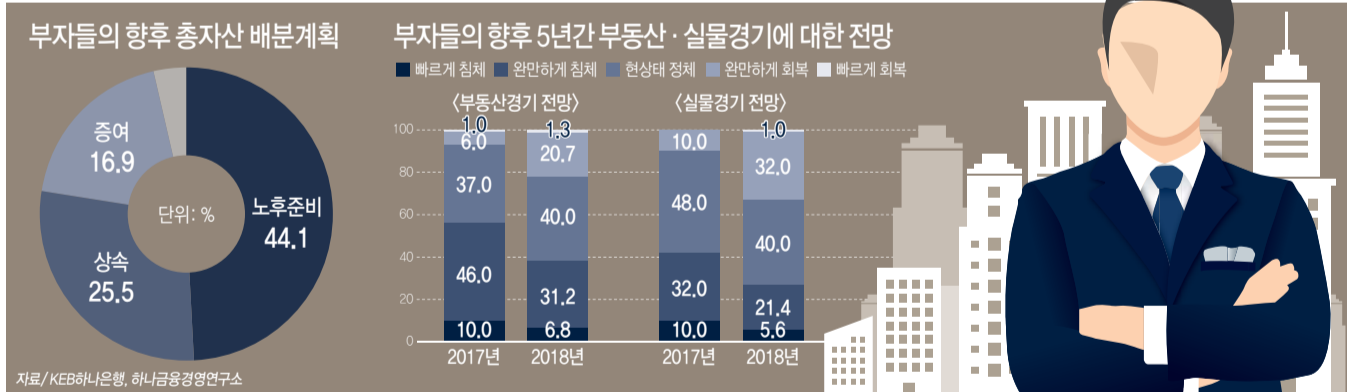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4위인 대림산업(8조2835억원)과의 격차가 벌어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더라도 양사 합병보다는 두 회사 체제로 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물론 최고재무담당책임자(CFO) 등 핵심 요직에는 인수 회사 측의 사람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성 기자

“집 안 팔아요”... 韓 부자들 86% ‘부동산 불패’ 믿는다

KEB하나銀-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 10억 이상 고객 808명 설문
59% “2~3년 내 매각 의향 없어”
재테크 상품은 ELS·ELT 등 선호



#. 서울 강남구에 사는 재력가 A씨(56)는 108억원의 현금 자산을 가진 부자다. A씨는 가진 돈의 약 45%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시가로 따지면 55억원 가량이다. 나머지 자산 50% 가량은 금융자산이다. 주식 비중(13%)은 줄인 대신 해외금융자산을 늘렸다.

#. 잠실에 사는 금융 자산가 B씨(61)는 자산 500억원대의 초고자산가다. 그 역시 부동산에 절반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그는 작년에 부동산 자산을 늘렸다. 서울 시내 상가를 사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 금리가 낮아진 탓에 은행 예금보다는 주식 투자로 눈을 돌렸다. 그의 가족은 한 달 평균 980만원을 쓴다. 그는 2월에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겨울 휴가를 떠날 계획이다. 중간에 미국 본토에 들려 건강검진도 받을 생각이다.

부자들의 절반 가량(43%)은 현재의 자산 구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10명중 5.86명은 2~3년내 부동산을 팔 계획이 없었다. 응답자의 85.6%는 투자목적 주택을 최소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대책 비롯한 부자들, “부동산 안판다”

현재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자산 50.6%, 금융자산 43.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반 가계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높지만 부동산 보유도 늘었다. 큰 손들의 ‘부동산 불패’ 믿음은 굳건했다.

정부가 지난해 6·19대책, 8·2부동산대책 등을 잇따라 내놨지만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겠다는 응답은 4.7%였다. 또한 58.6%는 현재 보유중인 투자용 부동산 자산을 향후 2~3년 내에 매각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현재 부자들의 투자목적 부동산 보유 현황과 계획은 어떨까.

전체 응답자의 85.6%는 거주용이 아닌 투자목적 주택을 최소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주택의 종류로는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2.9%는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가와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는 부자 중 절반(47.6%)가량은 건물이나 상가에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약 9%포인트 줄었다. 반면 투자용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사겠다는 응답자는 16.7%였다. 전년 조사 때보다 5%포인트 늘어 주택 및 아파트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2018년 부자들이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무엇일까.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국민재테크 상품으로 불리는 지수연계증권(ELS)과 지수연계선탁(ELT)이었다. 다음

은 주식형펀드(공모)였다. 이어 단기 금융상품(1년 미만 정기예금, MMDA, CM A 등)이었다. 불확실한 금융시장에 대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심리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경영팀 김지현 수석연구원은 “4차 산업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았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새로운 투자자산(크라우드 펀딩, P2P, 가상화폐 등)에 대한 선호도 상당했다”고 분석했다.

부자들의 지난해 금융자산 평균수익률은 6.61%였다. 올해는 7.54%가 목표였다.

글로벌 자산에 대한 관심도 컸다. 부자들 10명 중 8명(83.3%)은 이미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금융자산 중 평균 9.8%를 외화금융자산(주로 외화예금 47.2%, 달러구조화상품 12.5%, 달러ETF 6.6%)에 투자했다. 특히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적극적으로

로 외화금융자산에 투자했다.

◆부자 87.6%는 개인연금 보유

100세시대다. 부자들의 노후자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국내 부자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44.1%를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의 현재 월 평균 지출규모가 105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65세 은퇴기준으로 100세까지 44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 등을 하지 않고 전 재산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이들도 10%나 됐다.

또한 부자들은 개인연금을 노후자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부자의 87.6%가 개인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금자산을 수령 중인 부자의 경우 연금 수령금을 다른 금융상품에 재투자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67%나 됐다. 노후자금인 만큼 연금수령금의 재투자는 안정형·안정추구형 금융자산에 주로 투자했다.

부자들의 2017년 소비행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부자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1059만원으로 일반가계(336만원) 대비 3.2배 높았다. 일반가계의 월 평균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반면 부자들은 9% 상승해 일반가계와 부자의 소비행태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 강남3구 부자들의 지출규모가 여전히 가장 높았다.

자신을 위해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곳으로 ‘문화 및 레저’(73%)와 ‘의료비 및 약품비’(37%)를 꼽았다.

/김민호 기자 kmh@

“4대보험 가입 안해도 OK... 늦어도 12월까지 신청”

일자리 자금의 오해와 진실

(중) 어떻게 받아요?

소급지원도 가능, 신청은 연 1회만 5인미만 사업장 오프라인서도 접수 다른 인건비 정책지원 받지 않아야

#“상담사 ○○○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문의하려고요. 홈페이지를 보니 신청자격 요건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스에선 왜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 가입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만 가입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관련 정보가 다른 (4대 보험 관련)기관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관련 공단에서 가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에 한해 보험료를 50% 감감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지원 여부 결정엔 얼마나 걸리나요. 소급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8일이 소요됩니다. 소급적용도 가능해 올해 안, 그러니까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소급되는 신청일의 전월까지는 결정일 3일 이내에 지급되고, 신청월에 대해서는 10일, 20일, 30일 중에서 기업이 선택한 날에 지급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 인원이 3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원 조건 판단은)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로 봅니다. 3개월 연속해서 30인 이상이면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3개월 기준으로 30인 미만이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신청전에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엔 어떤 것이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30인 미만,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액 기준으로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개인사업장은 사업소득이 연 5억원 이하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임금체불명단에 공개돼 있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유형이 상당히 많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데, 인건비에 대해 100%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접수를 해 관할지사가 심사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원 ○○○였습니다.”
최근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기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상담사와 31일 전화통화 한 내용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정부가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건수는 약 9500건으로 전체 대상 근로자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

린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애써 만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을 인식한 듯 “홍보는 상품의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친절하고 섬세한 안내서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민간의 ‘직접 소통’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도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경기 용인에 있는 기업으로 달려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다만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30~40시간은 12만원, 20~29시간은 9만원 등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일용근로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이면 13만원,

19~21일은 12만원 등으로 역시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급도 되기 때문에 연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는 전국적으로 3940곳에 이른다.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월 보수액 190만원’이란 기본급이 아닌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총 월급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야근이나 주말근로 등으로 수당이 많은 제조업의 경우 ‘190만원 미만’ 기준이 너무 낮다는 불만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자금이 지원되지만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엔 미가입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노동자의 임금이 전년보다 낮아지는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임금이 깎이는 경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감원하지 않고 임금을 깎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미리 빌렸나?... 얼어붙은 은행창구, 간간이 문의전화만

新 DTI 시행 첫날

시중 은행 대부분 혼란 없이 썰렁 다주택자 대출한도 절반으로 ‘뚝’ ‘얼마 빌릴 수 있나요’ 전화문의 ↑

#.1월 31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A시중은행 대출창구.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은 컴퓨터 모니터만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보다 자주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깼다. 오후 들어서도 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은 찾기가 힘들었다. 창구가 6개나 되는 다른 시중은행 창구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을 대폭 조이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인식)가 시행된 첫날. 강남권 못지않게 부동산 경기가 핫하다는 공덕동 일대 은행 창구는 대부분 한산했다. 대출신청은 물론 상담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분지 기자가 둘러본 마포구 용강동, 용산구 한남대로 지역 시중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은 데다 금융당국의 시중은행 대출 동향 점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상한 자금’에 칼을 빼든 국세청의 옥죄기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게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A은행 송파구 A지점 관계자는 “기존



다주택자의 돈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채신화 기자

에 담보대출을 진행하던 고객들의 걱정이 컸다.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을 염려했다. 매매계약 전에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한도 조화를 미리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용산구 일대. 이곳에 있는 한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대출 신청은 단 한 건이었다. 올 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집을 장만하기 위한 대출문의였다”며 “달라진 내용을 묻는 전화가 평소보다 많다. 가끔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다주택자 같은 큰 손들이 많아야 은행도 남는 장사를 한다. 올 하반기 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까지 도입되면 집 싸고 집에 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야”고 말했다.
B은행에서 만난 P씨(가명·57)는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담보가 없는 것

도 아닌데 손에 쥐 수 있는 돈이 몇 천만 원이 아니냐 말이 됩니까?”라고.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그는 지난해 갭투자자로 사들인 아파트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러 왔다가 생각했던 만큼의 대출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새로 산 집은 서울 마포구 S아파트. 자영업자인 박 씨는 올해 초 만기가 돌아온 적금과 이 집을 담보로 잔금을 치르려 했지만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발목이 잡혀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박 씨는 “대책이 발표된 건 알았지만 연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따지면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고 봤다. 꼼꼼히 살피지 않은 게 실수였다”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오후 2시 30분 용산구 한남대로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찾는 사람이 없어 썰렁했다. 한남대로 일대는 부촌이 많이

들어서 있어 다주택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개업소는 아예 문을 닫고 겨울 휴가를 떠난 곳도 있었다. 당분간 손님들 발길이 끊길 것으로 판단해서다.
마포구 토정동 인근도 마찬가지다. 토정동의 부동산 중개업소 이모(43·여) 대표는 “여의도 생활권의 직장인들이 많다. 실수요자들은 괜찮겠지만, 기존 서너 채씩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몸을 잔뜩 낮춘 상태”며 “매물도 줄어 들고 시장에서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호·채신화 기자 kmh@

한편 신DTI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평균 DTI가 30%를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2억원을 금리 3.0%에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린 연봉 6000만원 대출자가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신DTI 시행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8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 하반기 도입되는 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은 다주택자들을 더 옥죄 전망이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한 수치다.

제53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2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3월7일~3월29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3월10일~3월3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 18일(일), 3월 25일(일), 3월 27일(화)

김민석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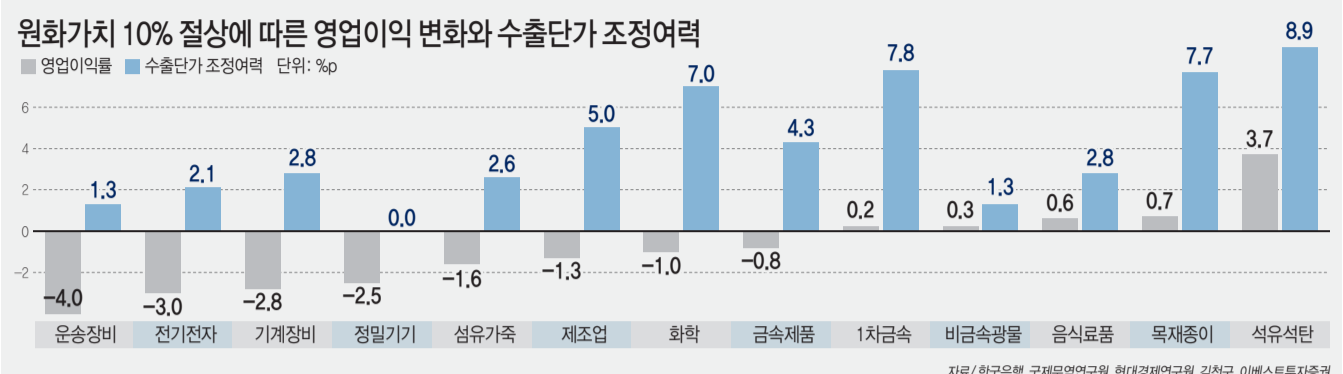
교육문의 02)521-9111 (강남역 5번출구)

韓경제 장밋빛 전망 불구... 기업들은 환율에 ‘일희일비’

달러의 힘, 新통화전쟁

② 달러만 바라보는 韓경제

원화값 상승으로 낙수효과 기대 경영 영향 ‘환율 변동’이 가장 커
日선 엔화 하락에도 수출 하락세



자료/ 한국은행, 국제무역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김건우, 이베스트투자증권

◆ 원화값 상승, 낙수효과 신동치 않아
과거 원화값 하락(환율상승) 국면에서 한국경제는 성장했다. 예상밖 결과다. KB증권이 실질 GDP 성장률과 원·달러 환율을 분석한 결과 과거 원·달러 환율이 0~10% 이내 전년비 하락률을 기록했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3.2~3.5%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성장을 전망치는 3.0%이다. 2018년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7% 하락한다면 2018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3%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직은 장밋빛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성장률을 2.8%로 올렸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도 같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2.8%, 2.9% 성장을 전망했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지금처럼 좋을 때 얘기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로 바뀌려면 수출이 잘 돼야 한다. 당장은 좋다. 관세

◆ 원화값 상승, 낙수효과 신동치 않아
과거 원화값 하락(환율상승) 국면에서 한국경제는 성장했다. 예상밖 결과다. KB증권이 실질 GDP 성장률과 원·달러 환율을 분석한 결과 과거 원·달러 환율이 0~10% 이내 전년비 하락률을 기록했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3.2~3.5%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성장을 전망치는 3.0%이다. 2018년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7% 하락한다면 2018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3%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직은 장밋빛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성장률을 2.8%로 올렸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도 같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2.8%, 2.9% 성장을 전망했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지금처럼 좋을 때 얘기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로 바뀌려면 수출이 잘 돼야 한다. 당장은 좋다. 관세

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한 30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 덕이다. 문제는 환율이 아래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은 수출기업에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연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인 기업 5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슈로 ‘환율 변동 심화’(48.4%)를 첫순위로 꼽았다. ‘글로벌 경쟁 심화’(25.1%), ‘미국·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16.0%)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들은 보통 환율이 10% 하락하면 운송장비업의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전기전자산업은 3%포인트, 기계장비는 2.8%포인트 감소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이 대부분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 김건우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장기적인 환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동시에 기업들은 자체 환율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응답기업의 67.9%는 이미 환차손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방 리스크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 고용개선세 미흡에 따른 내수회복세 약화를 들었다. 그라운드 S&P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리 인상 흐름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조치도 내년에 가시화할 것”이라며 “다만, 이는 글로벌 경기와 무역 개선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 환율우려, 기우일까? 환율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의 ‘엔’가 주력 품목의 수출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산업연구원(KIET)의 ‘해외생산 확대

가 수출에 미치는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14년 일본 수출은 6900억 달러로 3년 만에 15.8% 줄어 들었다. 보고서는 “엔화·달러 환율 가치 하락에도 수출 회복이 더딘 현상은 해외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기업 상당수도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KIET 측은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정책 선택과 동향을 반영교사로 삼아 미래 정책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환율의 상관관계도 떨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환율이 제조업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1992년 대비 27% 감소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연구원은 “지난 30년간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되어 왔고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도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요인보다 글로벌 경기상황이 더 중요해진 데다 수출의 내수 및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가 미흡해진 구조적 변화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의 환율하락을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인 발전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써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발 통화전쟁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과 위안화 및 중국의 경제불안, 미·중 갈등이 겹칠 때 충격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총수일가 사익편취 의혹 ‘공익법인’ 실태조사 본궤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 동일인 해당여부·상증세법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그간 공익법인은 사회 공헌이라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에 동원된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2단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그 대상은 5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이다.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사회공헌사업을 목적과 다르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된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개를 대상으로 2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목적은 상속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

대, 부당지원,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세부 조사 내용은 ▲출연받은 재산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비중 등이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개별거래정보 등

을 담지 않도록 했다. 혐의 포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각 법인에 45일간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한 공정위는 3월 중순까지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 안에 세부 조사 내용과 그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자에게 45일간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했으며 3월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박인용 기자 parkiun7854@

“메가 브랜드 육성... 브랜드 가치 높여야” JY 경영 공백에 ‘투자 감소’ 등 불안요소도

>> 1면 ‘올해 ‘뉴롯데’ 원년’서 계속

이러 “글로벌 사업 확대는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대표이사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글로벌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그룹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여성, 아동, 글로벌 등의 주제로 브랜드 빌드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각 사별로도 메가 브랜드를 육성해 롯데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강조했다. 그는 “기술 환경과 고객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적”이라며 “AI, 로봇, IoT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롯데의 전 비즈니스에 적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서비스를 디지털화 하는 것으로는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고, “비즈니스 전 과정에 적용되어 생산성 향상, 물류와 배송 시스템 개선, 서비스 혁신 등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회장은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만큼 올해는 특히 위기 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리스크에 대비하는 기업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인용 기자

>> 1면 ‘삼성전자 세계 1위’서 계속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공백 길어지면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크라이슬러 그룹의 지주사 엑소르 사외이사와 중국 보아오포페 상임이사 자리를 내었고, 미국 IT 기업들과 교분을 맺던 선밸리 콘퍼런스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하만 이후 대형 M&A도 부재다. 투자 규모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시실투자 43조 4000억 원을 집행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 투자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년 대비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가 액면가를 기존 50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한다고 공시했다. 액면분할이 실시되면 주가는 5만원 선으로 낮아진다. 보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도 늘렸다. 지난해 잉여현금흐름의 50%인 5조8000억원 전액을 배당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연간 배당금액인 4조원 대비 약 46% 증가한 수치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2016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발표한 2017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계획대로 완료했다. 지난 1년간 총 4회차에 걸쳐 보통주 330만2000주, 우선주 82만6000주를 매입해 소각 완료했다. 총 9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가 250만원을 상회해 일반 주주들이 접근하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웠다”며 “액면 분할 수 현재 주가 기준 5만 원대로 낮아지는 주당 주가는 투자 저변 확대와 유동성 증대 효과 등으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Don't Follow The Wind, A Walk in Fukushima, 360 degree video, headsets, cafe furniture from Fukushima, Australian uranium, maps installation commissioned by the 20th Biennale of Sydney view at Carriageworks, 2016 Photograph by Zan Wimberley © Don't Follow the Wind

미술의 언어로 말하는
비극적 역사와 참혹한 현실의 직시

악의 사전 The Dictionary of Evil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2018

강원국제비엔날레 2018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일원

2018년 2월 3일 (토) - 3월 18일 (일)

개막식 _ 2월 3일 오후 2시

제2 동양사태 막는다... 금융사 보유 7개그룹 통합감독

(삼성·한화 등)

당국,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 자산 5조이상 복합금융그룹 대상 자본적정성·위험관리 상황 공시 금융·비금융 간 방화벽도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열어 금융그룹 대표와 민간 전문가들에게 통합감독제도의 도입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삼성·현대 등 금융회사를 보유한 7개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한다. 대표회사가 자본적정성 등을 평가해 그룹의 위험을 통합 관리하고, 동반부실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비금융 간 방화벽을 강화하는 등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 깐깐해지는 감독... 대표회사가 '그룹위험 통합관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월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구체적 흐름"이라며 "특히 그룹위험의

통합관리는 그룹의 명암이 금융계열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관리 방안〉

적격자본(①-②)	필요자본(①+②+③)
① 금융계열사 자본 합계 ② (-) 금융계열사간 출자액	① 규제 금융회사 : 금융업권별 최소요구자본 ② 비규제 금융회사 : 대안지표(proxy)로 산출한 최소요구자본(예:총자산의 8%) ③ 추가위험 가산 : 금융부문 외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 등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 = 그룹 적격자본/ 통합 필요자본(최소 100% 이상)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지난 2013년 동양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동양그룹은 그룹내 계열사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동양증권 등을 통해 비금융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파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우회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CP가 부실이 나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고, 동양증권은 제3자에 매각됐다.

당국은 건전하다고 평가받던 금융사가 그룹 경영위기의 영향으로 일순간 부실회사로 전락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총괄부서

(그룹 감독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은행·보험·금투 등) 간 분업 및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이다. 다만 감독실의 이 크지 않은 금융지주, 특수은행,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배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지주사 9곳을 뺀 금융그룹 45개 중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97개 계열금융사)이 통합감독 대상이 된다. 이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지정해 그룹 전체의 위험을 통합관리하고, 자본적정성·위험관리 상황 등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 동반부실 관리 등 '위험관리' 강화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그룹별로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하고,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통합 자본적정성도 평가한다. 복잡한 그룹 출자구조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

(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한다.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는 통합 필요자본을 그룹 적격자본으로 나눠 최소 100% 이상이 돼야 한다.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도 평가한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산업부문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 평가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로 인한 전이위험을 필요자본에 추가적으로 반영한다.

당국은 대우·동양사태 등 과거 사례를 토대로 올해 중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해 대표적인 위험전이경로에 따라 경로별 위험수준을 정량·등급 평가할 계획이다. 동반부실위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사에 계열사 의존도 축소, 추가자본적립 등 위험회피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세부 규제수준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

아울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고 비금융계열사와의 방화벽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자율규제·시장감시 측면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시장안착을 도모할 방침"이라며 "단계적으로 강행규범화를 추진하되, 국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금융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 통합감독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내 몸속의 혈액이 흐르는 수도관, 혈압의 건강한 관리!

비타민하우스의 코엔자임NatQ는 항산화 ·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Q10
100 mg

나토키나제
2,000 FU (부원료)

코엔자임NatQ 450 mg X 60 캡슐

하루 한캡슐로! 1. 간편하게 100mg의 코엔자임Q10 섭취! 2. 나토키나제 2,000 FU (부원료) 섭취!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식품코너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1588-8529

‘발상의 전환’ 프린터 업계의 생존 경쟁 컬러 해상도 낮춰 비용 줄이고 좁은 공간 적합 소형기기 선풍

틈새시장 노린 특화제품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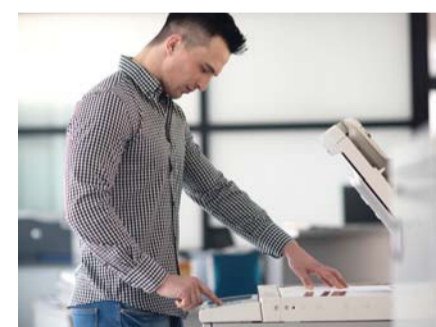
국내 프린터 시장은 2014년 이후 지속 줄어들 생존을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IDC에 따르면 국내 프린터·복합기 출하량은 200만대 수준에서 감소 중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틈새시장을 노린 특화 제품들이 성공 사례로 떠올랐다.

경찰청 속도위반 고지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흑백으로 인쇄됐지만, 신호등의 빨간색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차량 색상도 나타나지 않아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컬러 프린터를 사용하지는 수요가 있었지만 인쇄량이 많기에 비용이 문제가 됐다.

리소코리아는 일상적인 인쇄물에 고해상도는 필요치 않다는 분석에 해상도를 낮춰 인쇄비용을 줄인 컬러 프린터 '킵컬러'를 개발, 출력 비용을 1/4 수준으로 줄였다. 이에 경찰청, 한국전력 등 공공서에 공급돼 컬러 고지서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해상도가 필요치 않은 학교 시험지, 학원 교재 등을 위해 '퍼펙트 바인더'라는 옵션 기기도 도입했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프린터가 출력부터 제본까지 분당 100페이지 속도로 자동 제작해준다. 아웃소싱 없이도 책자를 만들



정체기를 맞은 프린터 업계가 이색 아이디어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오른예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리소코리아 관계자는 "단순한 그림 등은 해상도를 낮춰도 보는데 문제가 없다"며 "비용 때문에 컬러를 도입하지 못하던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게 한 성공사례"라고 말했다.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는 서류와 교재 등 종이 출력물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공간은 협소한 회계법인과 학원을 위해 고속 출력이 가능한 소형 복합기(MFC-L6900DW)를 선보였다. 최대 50ppm의 속도, 1200x1200dpi 인쇄 해상도를 지원하며 토너 하나로 최대 2만매를 인쇄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등록된 사용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치도 갖췄다.

업계 관계자는 "프린팅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이 안정적인 수익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하니웰과 손잡은 LG, 자율주행차 보안 기술까지 확보

통합 보안·ADAS 솔루션 공동개발
국내외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LG전자가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외의 유수의 업체들과 기술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제 인증도 잇따라 획득하는 등 미래 주요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사업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는 것.

LG전자는 항공기 및 차량용 보안 분야의 글로벌 강자인 미국 하니웰사와 자율주행차 통합 보안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차량보안은 자율주행 시대,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기술로 꼽힌다. 양사는 자율주행차의 보안 전 영역을 통합한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연말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양사의 보안 솔루션은 ▲외부 통신망을 통해 시도되는 해킹 탐지 및 방어 ▲USB 포트 등을 통해 차량 내부 네트워크를 겨냥한 보안 위협 대응 ▲각종 전자부품 별 보안 기술 ▲수많은 차량



들의 보안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클라우드 보안 관제 등이다.

LG전자는 외부 통신망을 통해 차량을 노리는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인 IDPS와 텔레매틱스(자동차용 통신시스템), AV내비게이션 등 개별 전자부품에 탑재되는 방화벽,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니웰은 항공기 보안 분야에서 30여

년 동안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차량 내부 보안 기술력을 갖췄다. 업계 유일의 클라우드 보안 관제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VC사업본부장 이우중 사장은 “하니웰과 함께 기존에 없던 올인원 보안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이 자율주행차의 필수조건인 보안 분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 NXP, 지능형 주행보조시스템(ADAS) 소프트웨어 기업인 헬라 아글라이아와 지난 7일에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

미국 NXP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독일 자동차 전자부품 헬라의 자회사인 헬라 아글라이아는 ADAS 편익기능 소프트웨어 강자로 꼽히는 곳이다.

이번 계약으로 LG전자는 도로 위 교통 정보 수집, 차선 유지, 보행자나 차량 인

식 등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ADAS 관련 솔루션을 오는 2020년까지 공동 개발한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동통신 반도체 시장 강자인 퀄컴과 V2X(차량과 모든 개체 간 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소를 설립했다. 12월에는 고정밀 지도 분야의 강자인 히어 테크놀로지와 파트너십을 맺고, 올해 내에 LG전자의 텔레매틱스와 히어의 3D 고정밀 맵 정보를 결합한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5월에는 IVI(차량 내장용 인포테인먼트 기기) 분야 SW 플랫폼 표준단체 제니비GENIVI연합의 부회장이자도 맡았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자신 있어 하는 IDPS와 텔레매틱스라는 자율주행차 부품 기술력을 가지고 여러 회사와 M.O.U를 통해 기술력을 강화 중으로 보인다”며 “자율주행차는 어느 기업 혼자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될 자율주행차 경쟁 싸움에서 영역을 미리 넓혀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oul.co.kr

KT “평창 5G 올림픽 준비는 끝났다”

공식 파트너 최초 홍보관 개관식
광화문광장서 ‘라이브사이트’ 운영

내달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 등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드디어 끝났다. 5G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태블릿 형태로 제공된다.

이날 KT는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중 최초로 홍보관 개관식을 갖고 5세대(5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 준비를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장 사장, 권명숙 인텔코리아 사장이 참석했으며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 사장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5G 상용화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2년 당겨 평창서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는 아웃사이드 트랙으로 경기를 즐겼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실제 경기 속으로 들어가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싱크뷰, 타임슬라이스, 360VR(가상현실), 옴니뷰 등의 기술을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찾은 관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관한 올림픽파크는 아이스아레나 등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빙상 경기장들이 밀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올림픽파크에는 일반 시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5G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5G 홍보관이 있다. 강릉 올림픽파크에 조성된 ‘5G 커넥티드’는 2월 8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된다. 5G 커넥티드는 5G를 상징하는 오각형 형태로 구성됐다. 1세대(1G)부터 5G까지 이동통신의 역사와 5G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미래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과 같이 데이터가 흐르는 듯한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면 스키점프대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영상 체험관이 자리 잡고 있다.

5G 네트워크 기반으로 변화하게 될



① KT 평창 5G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 인텔코리아 권명숙 사장, 강원도 정만호 부지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이희범 조직위원장, KT 황창규 회장,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왼쪽부터) 등 주요 인사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5G 준비 완료’를 기념하는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② KT가 강릉 올림픽파크에 마련한 5G 홍보관(5G, 커넥티드)의 ‘텔레포트(Teleport)’에서 입체영상으로 스키점프대를 서 있는 듯한 체험을 하고 있다. /KT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5G 시티’와 5G 네트워크를 통한 대용량 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을 게임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아이스하키 챌린지’도 만날 수 있다. ‘토치 릴레이 챌린지’에서는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실제 성화봉송 주자가 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강릉뿐 아니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KT 라이브사이트’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된다. 직접 경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방문객이 직접 봅슬레이 선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봅슬레이 챌린지’, 5G의 특징인 초저지연성을 활용해 모션 인식으로 봅슬레이와 드론, 자동차를 조정해 볼 수 있는 ‘커넥티드 스피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

공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준비도 끝마쳤다. KT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적용할 5G 기지국을 비롯해 5G 네트워크 장비 구축과 함께 서비스를 위한 최적화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실제 5G망에서 ‘5G 네트워크-단말-서비스’간 연동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준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무는 “2년 전부터 KT와 협력해 2016년 5G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지난해 필요한 모든 기술 확보하고 평창 올림픽 5G 단말 개발을 완료했다”며 “평창 시범서비스에서는 28기가헤르츠(㎐)대역 800메가헤르츠(㎐)폭을 지원하는 단말을 처음 선보인다.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도 롱텀에볼루션(LTE)보다 4배 빠르다”고 설명했다.

/강릉(강원도)=김나인 기자 silkni@

SKT, BTS와 손잡은 까닭은

엔터테인먼트 3사와 음악 플랫폼 론칭

SK텔레콤이 엑소·트와이스·방탄소년단 등 강력한 콘텐츠 파워를 보유한 엔터테인먼트 3사와 손잡고 연내 신규 음악 플랫폼을 론칭한다.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을 도입해 음악 산업에 큰 획을 그을 것이라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와 31일 서울 을지로 2가 SK텔레콤 본사에서 음악사업 협약을 맺고, 연내 음악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월 1일부터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아이리버가 엔터테인먼트3사 음원의 B2B 유통 운영을 맡는 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SK텔레콤과 제휴를 맺은 엔터테인먼트3사의 국내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약 15%이며, CD 등 음반시장 점유율은 약 50%를 상회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텔레콤은 연내 음악 플랫폼 서비스를 신규 론칭한다. AI·5G·블록체인 등 미래 기술을 도입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SK텔레콤은 개인 맞춤형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도록 AI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할 계획이다. 신규 음악 플랫폼은 자사 AI 플랫폼 ‘누구’와 연동해 음성 인식 스피커 및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의 핵심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5G와 함께 활성화될 AR·VR 등 미래 영상 기술을 활용해 ‘보는 음악 콘텐츠’ 개발도 추진한다.

SK텔레콤은 음악서비스와 함께 자사와 관계사의 상품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 스마트홈, 영상(옥수수), 커머스(11번가) 등 생활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 아마존 프라이모와 같은 차별적 고객 혜택 패키지 개발을 하는 식이다.

SK텔레콤과 엔터테인먼트3사는 K-POP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아티스트들이 비디오 콘텐츠를 활용해 해외 팬 층을 넓혀갈 수 있도록 4사가 힘을 합칠 계획이며, 아시아 시장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음악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음원 저작권 보호와 거래 기록 투명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거래 비용을 절감해 창작자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음악 유통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개념적으로만 논의된 바 있어 주요 음악 플랫폼 사업자가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음악 산업에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데이터 기반 음악 콘텐츠 사업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음악 콘텐츠 사업은 이용자들의 아티스트 선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공연·굿즈 등 콘텐츠 파생 상품을 기획·제작해 아티스트와 사업자 모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다. 재능 있는 신예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 활동이 가능한 공유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펀딩 형태의 공연 기획 등도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아이리버는 엔터테인먼트3사의 콘텐츠를 멜론, 지니 등 음악 플랫폼 사업자 및 신나라, 핫트랙스 등 음반 도소매업체에 공급한다. /김나인 기자



JYP 정욱 대표, 빅히트 방시혁 대표, SK텔레콤 노종원 유니콘랩스장, SM 김영민 총괄사장(왼쪽부터)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올 뉴 K3’ 파워트레인 최초 적용 “힘은 대형 세단, 연비는 경차급”



6년 만에 풀체인지 된 2세대 모델
‘스마트스트림’ 엔진·변속기 탑재
다이나믹한 외관 ‘리틀스티어’ 호평

트림’은 갈수록 심화되는 국가별 연비·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차량 성능에 대한 운전자의 다양한 기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 연비 개선 ▲실용 성능 향상 ▲배출 가스 저감 등을 목표로 개발됐다.

스마트스트림 첫 적용 차량인 올 뉴 K3는 2012년 출시 후 6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풀 체인지 모델로, 국내 시장에서 2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 뉴 K3는 경제성



기아차 올 뉴 K3 내장.

을 중시하는 ‘준중형 세단’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고자 15.2km/L의 ‘경차급 연비’는 물론 성능 및 내구성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5일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된 올 뉴 K3는 볼륨감과 다이나믹한 외관 디자인으로 ‘리틀스티어’라는 호평받은 바 있다. 올 뉴

K3의 실내공간은 수평으로 뻗은 크롬 가니쉬를 적용한 센터페시아를 통해 와이드한 디자인을, 플로팅 타입의 내비게이션, 원형 사이드 에어벤트를 통해 스타일리시함을 강조했다.

또 운전자의 사용성을 고려한 2단 콘솔 트레이, 조작이 용이한 버튼 레이아웃 등 편의성과 실용성을 향상시켰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자동차가 2월 출시를 앞둔 준중형 세단 ‘올 뉴 K3’에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적용한다. 올 뉴 K3는 고연비, 실용 성능, 친환경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신규 개발됐다.

기아차는 31일 올 뉴 K3에 차세대 파워트레인 ‘스마트스트림 G1.6’ 가솔린 엔진 및 ‘스마트스트림 IVT’ 변속기가 첫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 뉴 K3는 스마트스트림 G1.6 엔진 및 스마트스트림 IVT 변속기의 최적 조합을 통해 동일 차급을 뛰어넘어 경차급 연비에 준하는 수준인 15.2km/L를 공식 인증받았다. 이는 기존 K3 가솔린 모델 대비 10% 이상 개선된 수치다.

올 뉴 K3에 신규 탑재된 스마트스트림 G1.6 엔진은 제원 최적화로 기본 연비 향상 및 기술 확장성에 유리하도록 설계됐으며, 다양한 연비 신기술도 활용됐다.

현대·기아차가 독자 개발한 듀얼 포트 연료분사 시스템(DPFI)이 적용됐다. 듀얼 인젝터를 통해 연료 분사 시기와 분사 비율을 최적화한 다양한 분사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기존 싱글 인젝터 대비 연소 효율을 대폭 개선했다.

스마트스트림 IVT 변속기는 운전자의 의도와 주행 상태에 따른 다양한 변속 모드를 구현함으로써 변속 응답성, 직결감 등 주행 품질을 향상시켜 운전의 재미를 선사하도록 개발됐다. 운전자가 변속을 체감할 수 있는 AT 모사 변속 패턴과 매뉴얼 모드를 적용해 자동변속기(AT) 또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와 유사한 느낌의 빠르고 절도 있는 변속감을 구현했다.

기아차는 지난 5년간 엔진 및 변속기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차세대 파워트레인 ‘스마트스트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스마트스

볼보트럭 ‘AS망 확대’ 올해도 1위 잇는다 현대차 “상용차 고객과 디지털 소통강화”

올해 3190대 판매 목표

지난해 수입 상용차(트럭과 특장차 등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볼보트럭코리아가 애프터서비스(AS)망 확충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간다.

볼보트럭은 3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서비스 센터 1개를 추가 설립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서비스 센터를 40개 이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간 정비서비스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영재 볼보트럭 사장은 “지난해는 수입상용차 최초로 누적판매 2만대를 돌파해 2만 1344대 달성했다”며 “올해는 기존 고객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센터 확충을 통해 업타임(고장으로 차량이 멈춰 있는 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볼보트럭은 일년 내내 선두를 지켰던 비결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꼽았다. 볼보트럭은 2016년 7월부터 야간정비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현재 지역서비스센터 3곳과 비봉사업소를 포함한 총 14개 서



김영재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아미홀에서 2018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스 센터에서 야간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고객 방문율이 높은 인천 지점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총 17시간을 운영한다. 향후 3교대(24시간 정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보트럭의 지난해 총판매량은 약 2900대로 전년 판매량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 판매목표는 전년과 비교해 10% 성장한 3190대로 설정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 트럭 & 버스 서비스’ 앱 출시
맞춤 후 관리·정비 등 콘텐츠 제공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고객과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상용차 고객 전용 차량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인 ‘현대 트럭 & 버스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 앱은 화면 구성 직관성을 높이고 자가 관리 비중이 높은 상용차 고객의 특성을 반영, 차량관리 및 자가 정비 관련 콘텐츠를 집약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용차 퀵가이드(주요 경고등 등 FAQ) ▲운전자 자가학습 콘텐츠 ▲상용차 신기술 정보 제공 ▲고장 정보 검색 ▲정비 예약 ▲모바일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



현대자동차 모델이 상용차 서비스 앱 ‘현대 트럭 & 버스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리(A/S)에 대한 접근성도 높였다.

이 외에도 판매·부품·블루핸즈 네트워크를 위치기반으로 안내하고 실시간 도로 상황과 휴게소 정보를 알려줘 도로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상용차

고객 삶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현대차는 소개했다.

현대차는 범용정보 기반 개방형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실시간 이력, 소모품 교환 알림 등 고객 정보에 기반한 개인화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선보인다. 향후에는 실시간 고장진단, 연비 순위 측정 등 운행 관련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모바일 차량관리 플랫폼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용차 고객은 주로 생계수단 목적으로 차량을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차량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며 “별도 앱을 통해 더욱 차별화된 상용 모바일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이달 초 전 세계 상용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상용 글로벌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양성운 기자

SK이노베이션

비정유 영업익 2조 돌파... 딥체인지 ‘성과’

SK이노베이션의 비정유 부문 영업익이 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그간 화학과 유틸리티 사업을 강화해온 딥체인지 2.0의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은 31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 13조1195억원, 영업이익 845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조791억원에서 30.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491억원에서 0.5% 줄어든 수치다. 다만 당기 순이익은 2016년 4분기 1575억원에서 2017년 4분기 3655억원으로 132% 늘어났다.

연간으로는 매출 46조8265억원, 영업이익 3조2343억원을 달성했다. 전사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2016년

실적을 소폭 넘어섰다. 전체 실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비정유 부문의 약진이다. SK이노베이션은 화학, 유틸리티, 석유개발사업에서 영업이익 2조705억원을 기록했다. 비정유 부문 영업이익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화학사업이 매출 9조3392억원, 영업이익 1조377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선제적으로 파라자일렌 중심의 고부가 화학설비로 탈바꿈한 SK인천석유화학이 영업이익 4146억원을 달성한데 힘입어 화학 사업 영업이익이 1조원을 연이어 돌파했다. SK이노베이션의 비정유 중심 성장을 화학이 주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히잡용 세탁기·아얌고랭 전문 오븐... ‘현지화의 바이블’

(동남아 대표 음식)

동부대우전자

현지 생활맞춤형 제품으로 인기
냉장고·세탁기 등 판매량 급증

동부대우전자가 생활양식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을 무기로 해외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31일 전자업계 따르면 동부대우전자의 해외 시장 누적판매 대수가 500만대를 넘어섰다. 특히 이 회사는 1998년부터 20년 가량 현지 특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의 세탁기는 수출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동 시장에 수출하는 드림세탁기는 전통 의복인 ‘히잡’을 세탁할 수 있는 독특한 코스가 탑재됐다.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손빨래하는 방식을 기능화한 ‘이슬라미 린스’ 코스는 얇고 부드러운 히잡이 망가지지 않도록 세탁해준다. 코란에 나오는 히잡 세탁 규율에 맞춰 세탁 종료 후 세탁조에 물을 35% 정도 채우고, 탈수코스 진



동부대우전자가 중동에서 선보인 자물쇠 냉장고를 소비자가 직접 열어보고 있다. /동부대우전자

행 전 세탁조를 시계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2회씩·30초간 회전시켜 세제의 식을 표현한다. 이슬람 문화를 반영한 이 제품은 지난 2012년 출시 후 매년 2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며 중동 시장의 국민세탁기로 자리 잡았다.

현지인들의 요리 걱정을 덜어준 제품들도 인기다. 동부대우전자가 지난 2009년 중남미 공략을 위해 선보인 ‘셰프멕시 카노’ 복합오븐은 멕시코 스테이크, 아스

텍 스프 등 10여개 전통 요리를 자동메뉴를 통해 손쉽게 조리할 수 있다. 셰프멕시 카노가 멕시코 전자레인지 시장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덕에 동부대우전자는 멕시코 전자레인지 시장 점유율 2위(24%)를 차지할 수 있었다.

동부대우전자는 2015년 동남아에 특화된 ‘아얌고랭’ 프라이어오븐도 출시했다. 전자레인지, 그릴, 오븐, 프라이어 기능을 갖춘 이 제품은 동남아 대표 음식인 아얌고랭, 사테아얌, 나시우득 등을 기름 없이 버튼 하나로 요리하는 기능이 더해져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이 안 열리는’ 냉장고도 인기를 얻는다. 물이 귀한 중동에서는 외부인이나 아이들이 함부로 음식을 꺼내지 못하도록 냉장고에 시건장치를 하는데, 냉장고 자체에 자물쇠 기능을 넣어 불편함을 해소해준 것. 현재 누적판매 210만대를 돌파한 이 제품은 동부대우전자 중동지역 냉장고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효과 제품으로 거듭났다. /오세성 기자

밸런타인데이 D-13

편의점 빅3, 때 이른 초콜릿 전쟁

CU 드림웍스 상품 대거 출시 GS25 1+1 등 파격 할인 이벤트 세븐일레븐 차별화·맞춤형 상품

편의점이 오는 2월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다양한 초콜릿 상품을 선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CU(씨유)는 세계적 인 영화제작사인 드림웍스픽처스와 손잡고 공식 라이선스 상품들을 대거 출시한다. 드림웍스픽처스는 장화 신은 고양이, 치킨런, 드래곤 길들이기 등 어린이뿐만 어른들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든 제작사다. 국내에서도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CU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영화 제작사 드림웍스픽처스와 손잡고 기획 상품을 출시한다. /BGF리테일

CU는 드림웍스 작품 중에서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슈렉, 쿵푸 팬더, 트롤 등의 원작 캐릭터를 이등신으로 변형한 SD(Super Deformed)캐릭터 '드림웍스 KOUKOU'를 활용한 20여 가지 상품을 선보인다. CU가 캐릭터 상품을 대폭 강화한 이유는 지난해 밸런타인데이 관련 SNS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특정 브랜드의 상품에 대한 언급은 전년 대비 9.7% 포인트 감소한 반면 캐릭터, 포장, 색상 등 비주얼적 요소에 대한 언급은 전년보다 15.0% 포인트 늘어난 36.4%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CU는 인기 아이돌 그룹 워너원과 콜라보 한 '가나×워너원 패키지 팩', 장난감이 들어있어 어린이는 물론 키덜트족에게도 인기 있는 '킨더조이 세트' 등 다채로운 기획 상품도 40여 가지 준비했다. 김석환 BGF리테일 상품기획팀장은 "이번 밸런타인데이 상품들은 세계적인 영화 제작사의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유행의 트렌드 컬러인 핑크톤의 패키지로 사랑스러움을 강조했다"며 "밸런타

인데이가 부담스러운 이벤트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GS25는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로 알뜰한 밸런타인데이 준비를 돕는다. 2월 1일부터 7일까지 패레로로쥬 모든 상품(부케 등 별도 제작 상품 제외)을 BC카드로 구매 시 50% 청구 할인해준다. 또 로아가, 킨더 등 40여종의 인기 초콜릿과 초코 상품에 대해서도 1+1, 2+1 증정 이벤트를 진행해 알뜰하게 밸런타인데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40종은 지금까지 운영했던 밸런타인, 화이트데이를 모두 합쳐 가장 많은 행사 상품이다. 아이돌 그룹 워너원 팬들을 설레게 할 워너원기프트 상품도 준비했다. 가나초콜릿과 포토엽서, 브로마이드 등이 포함됐다. 흥성찬 GS25마케팅팀 담당자는 "배보다 배꼽이 큰 기프트 상품과 귀여운 캐릭터 상품, 로제 50% 할인 및 +1 이벤트 등 전에 없던 상품과 파격적인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밸런타인데이를 연이은

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친구 등 모두에게 가볍게 선물하는 날로 자리잡으면서 선물 하는 이와 받는 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속 있고 차별화한 맞춤형 상품을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세븐일레븐 베스트 상품으로 자리잡은 시크릿쥬쥬 립캔디를 담은 이색 선물과 밸런타인데이 인기 초콜릿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을 단독 판매한다.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한 밸런타인데이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했다. 귀여운 표정과 재미 있는 몸짓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오버액션토끼',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라에몽'을 활용해 차별화된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이진형 세븐일레븐 상온식품팀장은 "최근 밸런타인데이에 부담 없는 선물을 하더라도 재미있고 색다른 상품을 찾는 소비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세븐일레븐은 차별화 요소를 더한 다양한 선물과 풍성한 할인 혜택을 강화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Advertorial Corner

'올클리어 클렌징 오일 힙'으로 잔여물 없이 한 번에 지운다

더페이스샵

깔끔한 세정력에 산뜻함까지 더해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오일거품으로 메이크업 잔여물을 남기지 않고 한 번에 깨끗하게 클렌징 해주는 '올클리어 클렌징 오일 힙'(사진)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클리어 클렌징 오일 힙은 용기 펌핑 시 바로 조밀한 오일 거품입자가 풍성하게 발생하며 오일의 강력한 세정력이 1, 2차 세안 구분 없이 한 번에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준다. 미온수 세정으로도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지워져 별도의 2차 세안이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천연 유래 세정 성분이 피부에는 부드럽지만 완벽한 클렌징을 돕고 수분을 가

득 머금은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제형으로 세안 후에도 당김 없이 수분감과 산뜻함을 느낄 수 있다. 더페이스샵은 올클리어 클렌징 오일 힙을 포함해 클렌징 워터,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클렌징 폼, 클렌징 티슈 등 다양한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간편하고 깔끔한 클렌징을 돕는 '올클리어 클렌징 라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더페이스샵 올클리어 클렌징 라인은 전국 더페이스샵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오픈마켓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유진 기자

강릉에 들어선 햄버거 모양 '올림픽 파크'

맥도날드

올림픽 파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올림픽 파크 매장. /맥도날드

맥도날드와 올림픽의 인연은 지난 1968년 프랑스 그르노블 올림픽 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선정됐으며 지금까지 레스토랑으로는 유일하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활약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맥도날드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88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30년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다. 맥도날드 또한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 한국에 진출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 의미 있는 30주년을 맞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남다르다. 맥도날드는 지난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때 첫 올림픽 매장을 선보인 이후, 올림픽 개최 때마다 선수촌 내 올림픽 공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올림픽 선수촌 내 레스토랑을 무료로 개방하여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과 관광객들에게 맥도날드의 메뉴를 서빙해 왔다. 선수촌 내의 맥도날드 매장은 올림픽 기간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인기있는 장소로 주목받아 왔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한국맥도날드는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와 코칭 스태프들을 위해 올림픽 빌리지 지어지는 '강

릉 올림픽 선수촌 매장'과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강릉 올림픽 파크 매장' 등 두 곳의 올림픽 기념 매장을 운영한다. 강릉 올림픽 선수촌 매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각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음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일반 관광객을 위한 강릉 올림픽 파크 매장은 햄버거 세트 모양으로 지어져 올림픽 파크 내 랜드마크로서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전망이다. 이 매장에서는 빅 맥과 맥스파이스 샐러기 버거, 치즈버거 등 맥도날드의 대표 제품들이 판매된다. 또한 맥도날드는 지난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올림픽 챔피언 크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맥도날드 국가대표 크루'라는 이름으로 전국 매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80여명의 크루를 포함해 매니저, 점장, 분사 직원 등 총 260여명의 직원이 '강릉 올림픽 선수촌 매장'과 '강릉 올림픽 파크 매장'에서 일하게 된다. /박인용 기자

올해도 '스팸'으로 선물세트 1위 굳힌다

CJ제일제당

1200억원 매출 달성 목표



스팸 1호.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스팸'을 앞세워 올해 설에도 가공식품 선물세트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CJ제일제당은 스팸 매출을 극대화해 지난해 설 대비 20% 이상 성장한 1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명절 시즌 올랐던 '스팸' 선물세트의 역대 매출을 통틀어 가장 높은 금액이다. CJ제일제당 측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인식이 더해진 '스팸' 선물세트를 점점 더 선호하고 있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팸' 선물세트는 매년 매출

장에서 지난 2012년 설 18.3%의 점유율을 기록, 2위 업체와 0.6%P 근소한 차이로 1위를 기록했다. 이후 '스팸' 선물세트의 인기에 따라 지난해 추석에는 28.7%까지 점유율을 확대하며 2위 업체와 8.3%P의 차이로 확고한 1위를 기록 중이다. CJ제일제당은 목표를 달성해 올해 설에도 '스팸' 선물세트의 인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55종 308만 세트의 '스팸' 선물세트를 준비, 지난해보다 물량을 20% 이상 늘렸다. '스팸'만으로 구성된 단독 선물세트는 물론 '백설 고급유', '계절어보' 등과 복합 구성한 선물세트 등 다양한 종류의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3만원대 증가 세트를 주력으로, 2만원대에서 최대 7만원대까지 폭 넓게 구성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AMOREPACIFIC 중국發 악재로 전년比 영업익 32.4% 줄어

영업익 7315억... 뷰티 계열사 역성장

아모레퍼시픽그룹이 2017년 6조 291억원의 매출과 731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중국인 관광객 유입 감소 영향으로 주요 뷰티 계열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성장하며 매출은 10.0%, 영업이익은 32.4% 감소했다.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매출이 전년보다 16% 감소한 3조 3474억원을 기록, 해외 사업 매출은 7% 성장한 1조 8205억원이다. 국내 사업의 경우 관광객 감소에 따른 국내 면세 채널 및 주요 관광 상권 내 영업 부진으로 매출이 역성장했다. 해외 사업은 아시아 매출(1조 7319억원)이 10% 성장했고 북미 매출(529억원)

은 1% 줄었다. 유럽 매출(357억원)은 47% 감소했다. 주요 브랜드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부진한 실적을 내놨다. 이니스프리는 매출(6420억원)이 16% 감소했고 영업이익(1079억원)은 45% 줄어들었다. 에뛰드하우스 매출은 18%(2591억원) 줄었고 영업이익(42억원) 86%나 급감했다. /김유진 기자

롯데리아 '착한메뉴 및 스쿨세트' 출시

저렴한 가격에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롯데리아가 2월 1일부터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착한메뉴 및 스쿨세트'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착한메뉴'는 버거 3종, 디저트 7종, 드링크 5종의 제품을 낱짜와 시간에 제한 없이 최소 1000원에서 2000원 이하로 즐길 수 있는 메뉴로 구성했다. 특히 착한메뉴 신제품으로, 치킨 파티에 매콤달콤한 강정 소스를 사용한 '치킨강정버거'와 바비큐 소스를 사용해 스토키한 풍미가 돋보이는 '비프바비큐버거'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더불어 오랜 시간 사랑 받아온 데리버거까지 총 버거 3종을 각각 부담 없는 가격인 2천원에 즐길 수 있다. 또한 착한메뉴 버거(택1)와 포테이토(S), 콜라(S)로 구성된 '스쿨세



트'를 10대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5시부터 21시까지 3000원에 판매한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착한메뉴와 스쿨세트는 다양한 제품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25호(2017.9.19)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 상담 및 문의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최대규모 선수단 2925명... 韓 최다선수 출전 144명... 동계 역사상 최다 금 102개

'D-8' 숫자로 보는 평창올림픽
 최대·최다 등 동계 역사 새로 써
 美·日·英 역대 최다선수단 파견
 한국, 금 8개 등 최고성적 기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이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2014년 소치대회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만큼, 전 세계의 시선이 평창에 집중되고 있다. 평창올림픽 개막을 눈앞에 둔 강원도 일대는 현재 대회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평창올림픽 전용 도로들의 준비는 순차적으로 완료되고 있으며, 선발대가 입주해 있는 평창·강릉의 선수촌은 오늘 개촌식을 연다.

5만5000명의 자원봉사자, 대회 운영 요원 등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대회 개막만을 기다리고 있다. 안전 올림픽에 대한 준비도 이미 완료됐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편대가 지난해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 상공에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마크를 그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년 만에 한국 땅에서 펼쳐질 올림픽, 역대 최대·최다 규모를 확정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화려한 면면을 자랑할 것으로 기대된다.

◆92개국·2925명 출전...최대 규모

지난 30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전날 대회 참가 신청 마감(29일 오전 6시 기준) 결과 총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등록을 마쳤다. 이는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전 기록은 2014년 소치 대회 당시 88개국, 2780명이 최대였다. 2010년 밴쿠버 대회에는 82개국 2566명, 2006년 토리노 대회에는 80개국 2508명이 출전했다.

출전하는 선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총 242명의 선수가 출전 등록을 마쳤다. 뒤이어 캐나다가 226명, 스위스가 171명이다. 스위스의 경우 역대 동계 올림픽 파견 선수단 사상 최대 규모다.

도핑 조작으로 국가 자격 출전이 금지된 러시아는 4번째로 많은 규모인 169명의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다.

또 일본은 역대 해외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인 123명을 평창에 파견하고, 뉴질랜드도 2006년 토리노 대회보다 3명 많은 21명의 선수를 팀을 꾸렸다. 영국 역시 역대 최다인 59명의 선수를 내보낸다.

◆역대 최다 선수 확정된 한국

한국은 홈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역대 가장 많은 선수를 올림픽에 내보낸다. 15개 전 종목에 144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메달을 노린다.

이는 2010년 밴쿠버 대회(5종목 46명)

의 3배이자, 2014년 소치 대회(6종목 71명)의 2배 규모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고 뒤늦게 평창올림픽 대전에 합류한 북한도 5개 종목, 22명의 선수가 출전을 확정했다.

홈 그라운드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인 만큼 한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기대 중이다. 최다 규모에 걸맞게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종합순위 5위를 목표로 한다.

◆금 100개 넘는 첫 대회로

평창올림픽은 참가국·참가 선수 수가 많거나 많은 메달이 걸린 대회다. 세부 종목 수가 늘어난 덕분이다.

평창올림픽은 7개 경기, 15개 종목, 102개 세부종목으로 펼쳐진다. 세부 종목은 소치 대회보다 4개 늘어난 것으로 스노보드 빅에어, 매스스타트, 컬링 믹스더블, 알파인 스키 혼성 단체전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은 동계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100개가 넘는 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로코물 한 번 더?... 교복입고 하이틴작품도 하고파”

(로맨스코미디)

스타인터뷰 드라마 '저글러스:비서들' 최다니엘

배우 최다니엘이 3년만의 복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진지할 줄만 알았더니 로맨스에 코미디까지 자유자재다. '복귀작'이라는 말이 낯설 정도.

생각해보면 최다니엘은 늘 그랬다. 어느 작품에서든 꼭 제자리를 찾아 들어간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과하지 않게, 물 흐르듯 쉬어 들어갈 줄 아는 몇 안 되는 배우 중 하나다.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KBS 2TV '저글러스:비서들' (극본 조용/연출 김정현 강수연, 이하 저글러스) 종영 인터뷰를 위해 만난 최다니엘은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를 잃지 않았다.

가벼운 농으로 인터뷰를 시작한 최다니엘은 '저글러스'를 통해 복귀하게 돼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기대작이 아니었음에도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저글러스'는 기대작으로 주목 받은 작품은 아니었다. 그러나 근래 보기 드물었던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월화극 동시간대 1위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최다니엘은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면서 동료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스스로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기도 했다. 그는 “형들과 (강)혜정이 누나를 제외하면 제가 제일 나



KBS 2TV 월화드라마 '저글러스:비서들' 스틸컷.

이가 많더라.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 작품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보니 까지도 더 여유가 생겼고, 복귀작이란 부담감과 긴장감에서도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먼저 챙기면서 가자는 생각이었죠.”

최다니엘은 극중 타인의 관심, 그들과의 관계를 전연 거부하는 남치원 역으로 분해 열연을 펼쳤다. 극 초반 철벽형 인간이었던 남치원은 비서 좌윤이(백진희 분)에게 마음을 열고 연인으로 발전, 알콩달콩한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실제 연애 스타일은 어떻냐”는 질문에

‘철벽남’ 남치원 役으로 열린 코믹과 로맨스 넘나들며 호평
 “상대 배우가 돋보이는게 좋아
 시즌2, 할 수만 있다면 찍고파”



최다니엘은 호탕하게 웃으며 “연애할 때 애정 표현 같은 걸 잘 못하는 편이긴 하다”고 답했다. 이어 “장난 치는 건 좋아하는데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 건 연 단위로 걸리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백진희와의 ‘케미’로도 화제를 모았던 바, 앞선 작품에서도 유난히 상대 배우와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았던 최다니엘은 그 이유를 두고 “평범하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답을 내놨다.

“제가 쌍꺼풀도 없고 부리부리하게 생긴 편은 아니잖아요. 평범하게 생겨서 상대 배우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닐까요. 하하. 작품에서 제 상대가 더 예쁘게 나오는 게 좋아요.”

“가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티가 잘 안 나는 느낌도 있다”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그는 “저는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런데 주변에서 실렁실렁 하는 거 같다고 할 때가 있다. 그럼 저는 꼭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그런 것 때문에 상대가 더 부각돼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다. 뭐든 좋다”고 말했다.

나 아닌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실 쉽지 않다. 나의 움직임이 더욱 잘 보이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터. 그럼에도 최다니엘이 이렇듯 ‘밸런스’ 하나만을 보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는 “20대 때는 시기적으로 주어진 일을 해야 할 때가 더 많았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졌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복귀작을 ‘로코물’로 잘 마친 만큼 차기작에서도 한 번 더 ‘로코’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최다니엘은 “아직 크게 (차기작을) 생각해보진 않았다. ‘저글러스’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려고 한다”면서 “로코”를 한번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장르물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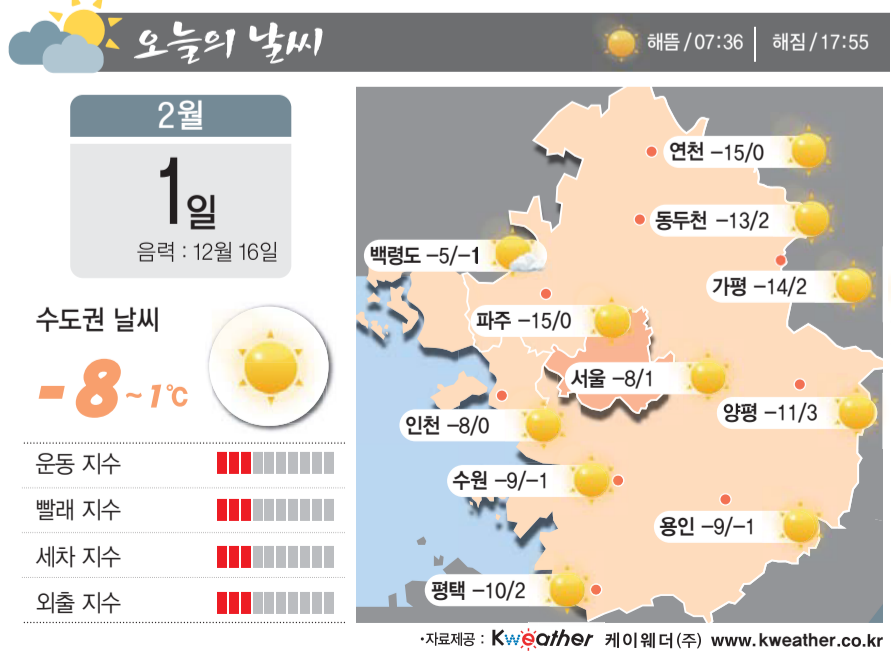
‘저글러스’ 시즌2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청이 줄을 잇는 만큼 시즌2 출연에도 욕심을 보였다. 그는 “시즌2를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하게 된다면 저도 꼭 출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소 영동한 바람으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바로 ‘교복’ 입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것. 그는 “20대 때도 교복 입는 역할을 못 해봐서 꼭 해보고 싶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웃음을 자아냈다.

어느덧 데뷔 14년 차에 접어들어 그가 하이틴 작품을 꿈꾼다고 밝힐 줄이야. 이렇듯 유쾌한 그에게도 슬럼프는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다니엘은 “20대 때 잠시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곧 “그런 시간이 그땐 필요했던 것 같다. 덕분에 욕심 안 부리고 유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대’라는 터닝포인트를 기점으로 성숙해져 돌아온 최다니엘. 그의 복귀 열전은 이제 시작이다. 최다니엘이 보여줄 유쾌한 행보에 기대를 걸어본다. /김민서 기자

/사진=케이와이드



‘국악계 큰별’ 가야금 명인 황병기 별세

향년 82세, 사인은 폐렴

‘가야금 명인’ 황병기 교수가 별세했다. 향년 82세.

故 황병기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31일 오전 폐렴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 3학년 때인 1951년부터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해 고등학교 시절 국립국악원에서 가야금 명인 김영운, 김윤덕, 심상건을 사사했다. 대학 2학년 때 KBS 주최 전국 국악콩쿠르에서 1등을 해 음악계 주목을 받았다.



‘가야금 명인’ 황병기 교수. /롯데문화재단

이후 1974년부터 이화여대 음대 한국음악과 교수로 활동했다. 1985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하버드대에서 객원교수

로 지냈으며 1986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가야금 독주회를 열기도 했다. 200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을 맡았다.

국악 창작 활동에도 매진한 고인은 1975년 명동국립극장에서 발표한 대표작 ‘미궁’을 비롯해 신라음악을 되살린 ‘침향무’, 신라고분에서 발견된 페르시아 유리그릇에서 영감을 얻은 ‘비단길’ 등 약 60년 가까운 창작활동을 해왔다.

고인의 장례식장은 서울아산병원 22호에 마련됐다. 장지는 용인천주교묘원이며 발인은 오는 2월2일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학생부 '순위 매기기' 완화... 내신 부풀리기 우려도

교육부 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3월 새학기부터 중·고교 적용
공동교육과정엔 석차평가 없애
공동 가이드라인으로 관리 강화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단계>

보통교과	공통과목	5단계 (단, 과학탐구실험 3단계)
	선택과목	일반선택 (단, 교양과목: 이수여부, 체육·예술: 3단계) 진로선택 3단계
전문교과	전문교과Ⅰ	5단계 (단, 실습형 과목 및 과제 중심 과목은 3단계)
	전문교과Ⅱ	5단계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장주영 사무관은 "서울과 수도권은 학생들이 많아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이 원활하다. 반면 도지역은 학생수도 적고 학교 간 거리 문제 등으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시도별 상황이 달라 시도별 개별 적용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새학기부터 중·고교 학생부 석차 평가가 완화된다. 특히 개별 학교에서 만들기 힘든 교과목을 인근 고교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을 수강할 경우 석차 등급을 아예 매기지 않는다. 학생들이 이 교과목을 성적 부풀리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강 인원 관계없이 모든 공동교육과정에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김중우 양재고 교사는 "공동교육과정의 확대 취지는 좋지만,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으면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 학교마다 학생들의 학생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또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신설된 진로선택과목과 과학탐구실험, 실습형·과제중심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3단계(A~C)로 느슨하게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육·예술교과에만 3단계 평가를, 나머지 대다수 교과는 5단계(A~E)로 평가해왔다.

2016년 기준으로 공동교육과정은 전체 고등학교의 41.5%에 해당하는 997개 교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718과목이 개설돼 학생 1만4497명(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이 수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석차 등급 미산출이 적용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6개 시도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새로 운영되면 공동교육과정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이같은 악용사례 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이전까지도 공동교육과정은 주로 석차 등급 미산출 기준인 13명 이하로 운영되면서 학생부 성적을 올리는

용도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일단 관할 시도교육청별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교과목에서는 기존 5단계 평가에서 성취율이 90% 이상일 경우 A를 받았다면, 3단계 평가에서는 성취율이 80% 이상이면 A를 받게 돼 학생들의 석차 평가가 완화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오는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 마련을 위해 '학생부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산출 방식을 개선해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업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과목이다. 지금까지는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

성취도 평가는 지난 2014년부터 학생부에 석차 등급과 병기돼 적용돼 왔지만, 대학 입시에는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 대학들이 성취도 평가를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성취도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지면, 학생부 성적의 영향력은 더욱 약해질 전망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공공기관 476곳, 2만6000명 신규채용 계획

준정부기관·부설기관 등 계획 포함
블라인드 채용은 10곳 중 4곳 검토



침이다. 기관별 채용 인원은 기타공공기관이 9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기업 8041명, 준정부기관 6990명, 출연기관 1637명, 부설기관 844명 순이었다. 채용규모를 확인한 기관은 총 205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 1곳당 평균 신규 채용인원은 공기업이 1곳당 11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출연기관(18명) 평균보다 6배 많은 수치다. 이 밖에 준정부기관(76명), 기타공공기관(46명), 부설기관(37명)으로 조사됐다. 채용시기는 1분기 채용 기관이 22.2%로 가장 많았고, 2분기 5.8%, 3분기 4.0%, 4분기 1.0%로 집계됐다.

올해 국내 공공기관 476곳에서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규모는 2만6000여명에 달한다.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은 10곳 중 4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크루트가 전국 1153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41.3%인 476곳에서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2만 6000여명이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2018 공공기관 채용계획' 조사에서는 324곳 2만 2876명이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 공공기관을 포함해 600여 곳에 달하는 자자체 출연기관과 준정부기관, 부설기관 채용 계획도 포함돼, 채용기관수와 채용인원이 증가했다. 채용계획을 검토중인 곳도 49.4%였

고, 채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준정부기관이 97곳 중 92곳(94.8%)으로 신규채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타공공기관은 239곳 중 202곳(84.5%), 부설기관은 34곳 중 23곳(67.6%)이 신규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공기업은 182곳 중 70곳(38.5%)이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지자체 출연기관 601곳 중 89곳(14.8%)만 신규 채용할 방

블라인드 채용은 기관 10곳 중 약 4곳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기관은 26.6%였고, 올해 도입 예정인 곳은 8.2%로 나타났다. 도입을 긍정 검토하는 곳은 2.5%로 나와 전체의 37.3%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용수 기자



청탁금지법 걱정없는 '축하 화환'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8 신화환 전시회에서 참석자들이 전문 플로리스트가 생화로 만든 10만원 이하의 축하 화환들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과장광고 '학원' 불법행위 특별점검

교육부 등 정부기관 9곳 협력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학원이 적발될 수 있다. 또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의 여부와 유아 교육 환경에 학원 시설이 안전하고 적합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 등 정부 기관 9곳이 협력해 선행학습 유발이나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경기도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 지역이다.

특히 올해부터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코딩교습을 허위 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교육부는 31일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의장 교육부 박춘란 차관)를 개최하고 오는 2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원가 합동 지도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하고, 17개 시도 교육청도 합동점검 기간 중 자체점검을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 벌점 부과 등이 조치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금신고 누락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해 세금도 추징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예를 들면, 자유허기(학년)제 기간 중

학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는 부당광고 모니터링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도 협력해 점검을 강화해 왔다. /한용수 기자

성결교회, '문화센터'로 시민에 돌아온다

87년의 역사를 품은 근현대 건축물 서울 체부동 성결교회가 시민을 위한 생활 문화센터로 다시 태어나 시민 품으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종로구 '체부동 성결교회'를 새단장해 오는 3월 '체부동 생활문화센터'로 재 탄생한다고 31일 밝혔다. 본당은 시민 생활오케스트라의 공연·연습실로, 한옥은 마을 카페로 활용한다.

축물, 공간환경, 사회기반시설이다. 1931년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체부동 성결교회'는 87년의 역사를 품은 근현대 건축물이다. 신축 당시 서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프랑스식 벽돌쌓기로 넓은 공간을 조성하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영국식 벽돌쌓기와 미국식 벽돌쌓기 방식을 적용하는 등 벽돌쌓기 방식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 준다.



체부동 성결교회. /연합뉴스

체부동 성결교회는 서울시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관리해왔다.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

또한 교회 예배당 동측 벽에는 건축 초기 남녀가 따로 출입하기 위한 별도 출입구(2개소)의 흔적이 남아 있다. 지붕은 목조 트러스(truss) 구조로 근대 건축양식 그대로 복원됐다. 트러스는 부재가 3각형들

단위로 짜여진 구조 형식으로, 에펠타워 같은 건축물이나 교량에 주로 사용된다. 교회 외벽면은 프랑스식 벽돌쌓기와 영국식 벽돌쌓기가 함께 공존하는 벽면의 특징을 그대로 살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범중 기자 joker@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절차



[종합]
일자리 자금,
4대보험 가입 안해도 OK
늦어도 12월까지 신청
05



[산업]
'올 뉴 K3'
파워트레인
최초 적용
10



박원순 시장이 꿈꾸는 서울 시내 66곳에 기업 지원시설... 6만개 일자리 만든다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2022년까지 3.4조원 투입해
일자리 창출·미래 산업 육성

스마트 앵커 조성해 산업 시너지
R&D 단지서 미래 성장 인재 양성
혁신성장펀드로 창업자 재기 도움

‘위코노믹스(WEconomics)’, ‘공정·상생경제’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오는 2022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만여개를 만든다. 서울 곳곳에 창업·기업지원시설 66곳과 9396개의 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3선 도전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실상 경제분야 선거공약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혁신성장 경제정책과 맞닿아 있다. 그는 31일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위한 기회로 본다. 공정경쟁의 토대를 만들고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각자의 가치를 높게 될 것이다”고 프로젝트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타트업 등이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위코노믹스(Weconomics)에 초점을 맞췄다. 박 시장이 제안한 위코노믹스는 ‘1%가 아닌 100%를 위한, 모두를 위한 경제’라는 뜻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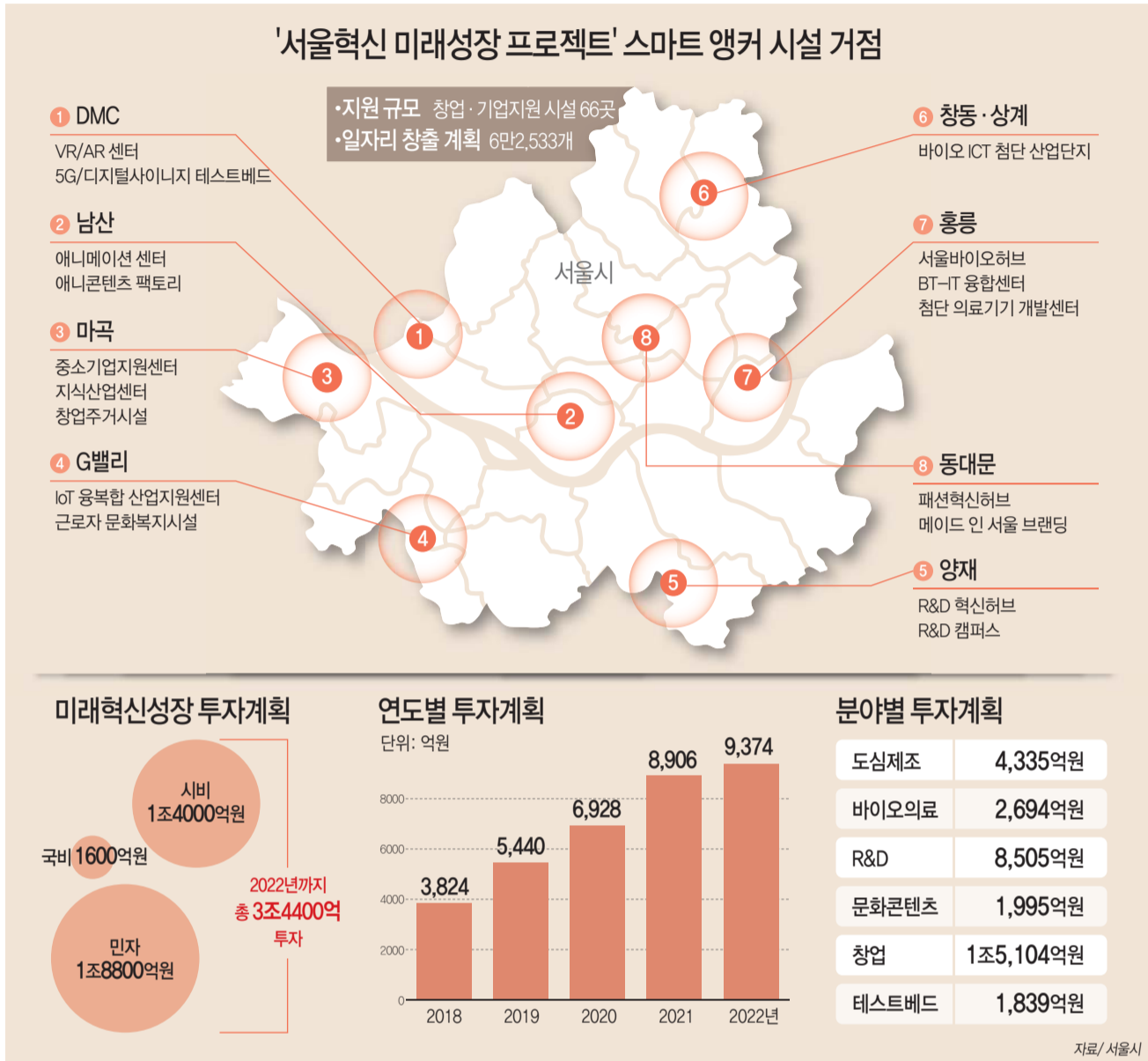
시는 이를 위해 5년간 3조4400억원을 들여 시내 곳곳에 창업과 기업지원 시설 66곳을 만들어 9396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6만2533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도심 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앵커 시설 20곳 조성 ▲동대문 서울패션혁신허브 조성 ▲홍릉·창동·상계 일대를 바이오·ICT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마곡·G밸리·양재에 R&D 단지 조성 ▲남산·상암DMC를 문화콘텐츠·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거점으로 조성 ▲창업지원시설 확충 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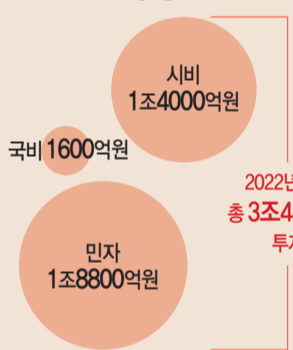
시는 우선 스마트 앵커(거점) 시설 20곳을 만들어 붕제·수제화·주얼리 등 제조업체 1개를 입주시킨다. 입주 업체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을 얻어 일감을 확보하게 하고, 인근 소상공인과 힘을 합쳐 산업 시너지를 내게 한다.

시는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자리에 기획·디자인·제조·유통·판매 등 패션산업의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서울패션 혁신허브’를 만든다. 세계 유명 패션스쿨과 연계해 패션 전문가도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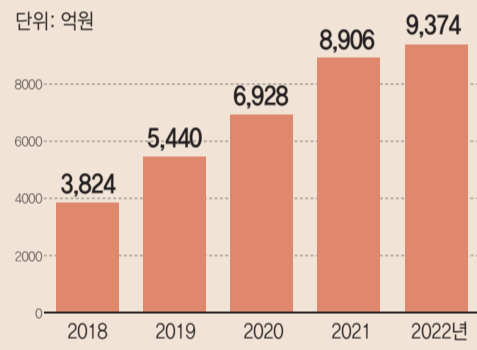
시는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를 도입해 우수 업체를 인증할 예정”이라며 “서울산(産)



미래혁신성장 투자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도심제조	4,335억원
바이오의료	2,694억원
R&D	8,505억원
문화콘텐츠	1,995억원
창업	1조5,104억원
테스트베드	1,839억원

자료/서울시

제품이 제값을 받고 팔리도록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릉과 창동, 상계 지역은 세계적인 바이오·ICT 첨단연구산업단지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문을 연 서울바이오허브에 2023년까지 스타트업 입주 공간을 200개 만든다. 바이오 펀드 1억원도 조성해 경쟁력 있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70억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서울바이오허브에 공용 연구장비 구매에 300억원을 쏟아 붓는다.

18만㎡ 규모인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2024년 차량기지 이전 후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로 변신한다.

마곡·G밸리·양재는 도심형 R&D(연구·개발) 단지로 거듭난다.

마곡산업단지에는 올해 7월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R&D 융합허브까지 ‘공공산업지원시설’이 들어서고, G밸리는 IoT(사물인터넷) 융복합 산업 지원시설과 문화·체육 등 근로자 복지시설을 확충한다. 양재 지역에는 연구소와 기업 250여 곳이 입주하는 R&D 캠퍼스가 만들어진다. 이곳에는 AI(인공지능) 특화 연구소를 비롯해 창업인큐베이터, 전시·체험·호텔·컨벤션 등 복합문화 공간도 짓는다.

시는 “2022년까지 미래 성장을 이끌 대학원생·연구원 등 혁신 인재 6000명도 양성할 계획”이라며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서울바이오허브, 개포디지털혁신파크, G밸리, 여의도, 양재 R&D 캠퍼스 등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남산과 상암DMC 일대는 문화콘텐츠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된다.

시는 남산 서울 애니메이션센터를 2022년까지 재건축해 연간 150만 명이 상이 찾는 명소로 꾸미고, 남산 일대에 문화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애니콘텐츠 팩토리’를 만든다.

상암DMC에는 ‘VR/AR 센터’를 2021년까지 만들고, 내년부턴 상업용 디스플레이 신기술을 거리에 선보이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한편, 시는 시내 창업지원시설을 2022년까지 현재 48개의 2배 수준인 90개로 늘리고, 민·관이 함께하는 혁신성장펀드 1조원을 조성해 창업에 실패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다.

대학가를 창업 중심지로 양성하는 ‘캠퍼스타운’ 사업도 2022년까지 60곳으로 확대된다.

박 시장은 “서울이 이루고자 하는 혁신성장엔 과거 개발주의식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의 성장”이라며 “2022년의 서울은 전 세계 혁신가가 모여들고, 이제껏 시도되지 않았던 도전과 실험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도시, 혁신으로 일자리·생산성·소득이 높아지고 시민의 행복한 성장을 이루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

국 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서울의 경험은 지방과 나누고, 서울의 성과는 전국으로 확대하며, 서울의 정책은 전 세계 도시로 수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범중 기자 joker@metro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 31일 오전 서울시장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형 유망산업에 5년간 3조 4000억원 집중 투자 등의 혁신성장프로젝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www.seoul.go.kr